2021.10.11. NO.686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HATECO LOGISTICS

HATECO LOGISTICS는 2004년 하노이 건축사업 및 인프라투자로 설립된 HATECO 그룹의 자회사이다. 크게 부동산, 물류, 항구건설 3가지 영역 중 물류를 담당하는 HATECO LOGISTICS는 2017년 11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하노이 롱비엔(Long Bien) Sai Dong B 공단에 위치하며, 24시간 가동체제로 총 면적은 120,000m2에 달한다. 하노이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업시설과 공단들이 밀집해 있는 북부 지방으로 공항, 항구, 도로를 통한 원활한 물류이동을 돕는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이루어진 교통운송부의 Decision No. 711와 재무부의 Decision 769는 HATECO LOGISTICS의 추가적인 도약을 가져왔다. 상기 결정으로 HATECO LOGISTICS는 롱비엔에 위치한 내륙 컨테이너 창고(Inland Container Depot, ICD)에서 바로 수출입 통관절차가 가능해지며 편의성이 극대화된 것이다. 수출입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게 되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HATECO LOGISTICS의 앞날이 밝은 이유다. 메이저 유럽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이퐁 항구의 Lach Huyen 항만지구에 제5, 6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바리어붕따우 성(Ba Ria Vung Tau)에도 추가적으로 Cai Mep Ha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완공 시 재고관리, 선별, 포장, 출고까지 전과정을 처리하는 오더 풀필먼트(Order Fulfillment)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기존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의 환적없이 곧바로 유럽, 북미, 중동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출처: HATECOGroup(링크),

덩치 커지는 물류 및 항만산업…하노이, 물류서비스 중심지로 부상

하노이가 북부의 물류중심지를 넘어 남부까지 아우르는 물류서비스 종합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2025년까지 승인한 물류 관리 및 개발 제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설립될 2개의 주요 물류센터는 크게 1) 내륙 및 항공 운송을 통해 지방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2) 남부지역 산업단지로의 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세계 주요 물류 사업자들의 하노이 지사 설립을 독려하는 한편, 물류 관리에 첨단 IT기술을 접목시킨 현대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질적인 물류창고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HATECO LOGISTICS는 재정부의 지원을 받아 롱비엔 ICD를 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ICD로 업그레이드하여 연간 135,000 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일컫는 단위)의 처리능력 및 동시에 100대 이상의 컨테이너 트럭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최근 갖추었다. 물류산업 뿐 아니라 항만인프라 확장에도 적극적인데, HATECO그룹으로부터 6조4252억 VND를 투자받아 최대 8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락후옌항(Lach Huyen) 제5, 6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물류산업의 GDP기여율을 8-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출처: AsiaNews(링크), KVINA(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

주요기사

풍력발전차액지원제도 예정대로 내달부터 종료

베트남 풍력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FIT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장기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수 민간주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존 계획대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남부지방의 많은 풍력발전단지가 3~6개월 연장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는 순수하게 입찰방식으로 전력구매단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고시하는 가격표에 따라 구매자와 전력구매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력구매단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FIT는 약속대로 해상과 육상 가격 KWh당 각각 9.8센트, 8.5센트를 보장하며 향후 20년간 진행된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환경운동연합(링크)

호치민-롱탄-저우저이 구간 왕복 8차선 확장 추진

호치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가 기존 왕복 4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된다. 사업시행자인 미투언(My Thuan) 사업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ODA 차관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서를 교통운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상 총 사업비는 12조 9690억 VND로, 이 중 80%이상을 ODA로부터, 나머지 20%는 국내은행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구간 고속도로가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빚는다는 점, 롱탄신공항 개항 예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 증가 등 2025년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이번 확장사업계획은 순조롭게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내년 최소 6개 SOE 매각 추진

베트남이 내년에 최소 6개 국유기업(SOE)을 매각해 15조~20조 VND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사베코, FPT, 바오민보험(Bao Minh), 띠엔퐁플라스틱(Tien Phong Plastic), 베트남국가재보험, 베트남부동산인프라(VIID) 등이다. 베트남은 1992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하여 2010년 국영조선사(Vinashin)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부채와 재정적자를 처리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한 민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영화 절차는 크게 주식회사화(equitization)와 정부 지분 매각(divestment)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베트남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 여전히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후자의 경우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영 기업 목록마다 국가 지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된 산업별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베트남 정부는 민영화에 있어 항공, 은행, 광산 등 국가주요기간산업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베트남 정부가 지분의 65%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링크), 법률신문(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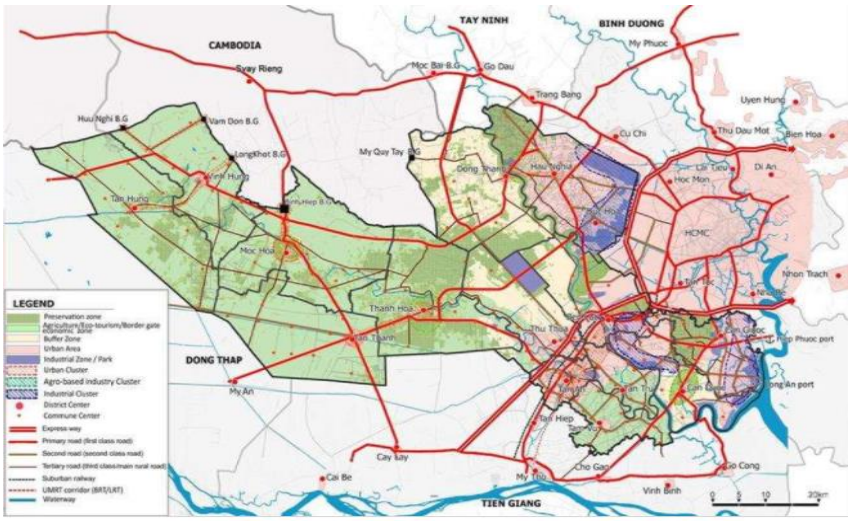
금융

베트남 은행계 역대급 영업이익 달성…그러나 부실채권 위험성↑

코로나가 베트남 은행계에 전례 없는 황금기를 가져왔지만, 지난 5년간 베트남 금융산업의 문제로 지적된 부실채권 비중 완화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 항공, 여행업계 등 많은 산업들이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가운데, 은행업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역대급 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BIDV, Agribank 등 Big4 은행 모두가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의 이익률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평균 매월 10,000개에 달하는 회사들이 파산 등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채권 비중은 극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국영은행은 지난 5년간 부실채권 비중을 줄여 나갔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향후 1~2년에 걸쳐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VietnamBiz(링크)

롱안 성



2021년	최저임금(₫)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떤안 시 및 득화, 벤륵, 투트어, 껀드억, 껀주옥 현 Region 2
끼엔뜨엉 지역 및 득훼, 쩌우타인, 떤쭈, 타인화 현 Region 3

명칭: Long An
성도: Tân An
교통: 1A번 국도, 62번 국도 30km
GRDP: 57억 USD (2020)
연간성장률: 5.91% (2020)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는 138만 명, 면적은 4,492km2이다. 베트남 남부 핵심 경제 구역의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북쪽으로는 호치민 시와, 남쪽으로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 서쪽으로는 캄보디아와 접경한다. 주요 산업으로는 농업, 산업·건설, 서비스업 비중이 2020년 기준 각각 15%, 52%, 33%이다. 구체적으로는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에 더해, 활발한 투자유치로 첨단 고부가 산업이 점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출처: 굿모닝베트남(링크)

IMG Phuoc Dong Wharf 공단

면적: 128ha
입지: Ben Thanh 시장 36km/ Cat Lai 항구 48km/ Phu My Hung 44km/ Long An 국제공항 44km/ Cai Mep 항구 63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125 USD/㎡ (VAT 별도)
- 전기료: 정부지침에 따름
- 물 사용료: IZ 지침에 따름 (용량 5,000m3/일)
- 폐수 처리: 성 정부 지침에 따름 (용량 3,000m3/일)

* 혜택: 최초 2년간 법인세 감면, 이후 4년간 법인세 50% 수입관세 면제
Decree 67에 해당되는 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출처: Kland(링크)

Huu Thanh 공단

면적: 524ha
입지: HCM – Trung Luong 15km/ 1A번 국도 20km/ Long An 국제공항 51km/ Tan Son Nhat 국제공항 40km/ Cat Lai Port 55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125 USD/㎡ (VAT 별도, 관리비 0.65USD/m2/연)
- 전기료: Normal hour(0.068 USD/kWh) + Rush hour(0.13 USD/kWh) + Off-peak hour(0.044 USD/kWh)
- 물 사용료: 0.53 USD/m3 (용량 20,000m3/일)
- 폐수 처리: 0.4-0.6 USD/m3 (용량 4,000m3/일)

*혜택: 최초 2년간 법인세 감면, 이후 4년간 법인세 50%
출처: Kland(링크)

한화에너지(Hanwha Energy)

한화에너지, 컨소시엄 통해 LNG 발전소 수주

한화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으로 구성된 '코리아 컨소시엄'이 하이랑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수주를 따냈다. 지난 8월 코리아 컨소시엄은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8일 꽝찌성 인민위원회가 1단계 사업의 투자자로 승인한 것이다. 하이랑 LNG 발전소는 베트남 중부 해안 지역인 꽝찌성에 120만m2 면적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서 1500MW, 2~3단계 사업을 통해 총 4500MW 규모로 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5조 5000억원에 이른다.

코리아 컨소시엄은 또한 현재 까나 LNG 사업 수주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마찬가지로 닌투언성 뚜안남 지역에 1500MW급 LNG 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시작하여, 2026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약 2조 5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닌투언성 인민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코리아 컨소시엄 외에 토탈·노바텍·페트로베트남파워 컨소시엄, 걸프MP 등이 입찰 참여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하이랑 LNG 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까나 LNG 사업 수주에도 전력을 다해 베트남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더구루(링크), 글로벌이코노믹(링크)

베트남 전력시장의 향방은?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베트남 전력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도이모이 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 부족을 경험한 베트남은 꾸준히 전력 공급원 확보에 앞장서 왔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엿볼 수 있는 2020~2030년 베트남 전원개발계획(PDP 8)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유지·LNG발전 확대·태양광 개발 합리화·풍력 발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아직 보조금 등 각종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 보인다.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된 베트남의 현상황과 그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수급에 문제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인더스트리뉴스(링크), KOTRA(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한화에너지의 베트남 진출은 2017 년 총 1 억 달러를 들여 베트남 롱안성에 125 만 m2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지 투자사인 BCG(Bamboo Capital Group)와 MOU 를 체결하여 합작투자 형태로 진행했으며, 2014 년부터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여 갈고 닦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조달·시공·기술지원 및 금융조달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건설을 총괄했다. 투자전문회사지만 다양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CG 는 토지 인허가 등 현지 개발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한화에너지가 지분 10%를 매입하며 핵심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2018 년에는 베트남 지사를 설립하며, 2014 년 싱가포르에 이어 4 년만에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마련하였다.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2030 년까지 1.2 기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함하여 2015 년 기준 5.37%에서 2030 년 21%로까지 증가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남부지역 태양광 사업 난립을 이유로 그동안의 높았던 태양광 보조금(FIT)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때문에 한화에너지는 베트남을 교두보로 동남아 각국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강점인 수소, LNG 에서도 활발하게 시장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출처: 한화(링크), 아주경제(링크), 더구루(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